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

강 기 선(도업)

동국대학교

〈요 약〉

이 글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생명윤리에 관한 가르침을 토대로 불교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고찰해본 글이다. 불교경전에 보이는 생명윤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생명[명근]의 본질은 바로 목숨이며, 능히 체온[媛]과 의식[識]을 유지하는 것을 목숨[생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죽음은 이와 반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곧 수명과 체온이 사라지고 기관이 모두 파괴되어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生]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온의 결합이고, 죽음은 이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며, 살생은 오온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오온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살생을 하게 되므로 경전에서는 감각기관인 6근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의 종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필자는 지혜와 자비심의 心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말은 불교의 종교교육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요건은 ‘지혜와 대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가 현대인의 삶에 끊임없이, 자극하는 욕망과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성 회복의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중생을 연민히 여겨 구제하는 실천행이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체 대비의 마음은 일체 중생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일곱 부처님[過去七佛]이 공통으로 설했다고 전해지는 칠불통게계(七佛通誡偈)의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수행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성이라 한다면, 불교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 불교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이것은 불교가 정식(情識)이 있는 존재인 모든 유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간직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 불교의 윤리도덕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교 윤리의 생명존중정신은 지혜(智慧)와 자비(慈悲), 연기(緣起)의 세계관, 불살생(不殺生)의 실천윤리인 방생(放生)과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자비희사(慈悲喜捨)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四生]를 인간과 동일 선상의 위치에서 존중하고 화합할 때, 인간 역시 자연과 더불어 공생공존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불교의 실천적인 생명윤리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지혜와 자비, 칠불통게계, 생명윤리, 방생, 오온, 사무량심

I. 서론

불교용어 중에 ‘인드라망(因陀羅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 속에는 “가없는 무한대(無限大)한 우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의 세포처럼, 아승지겁 (阿僧祇劫)의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말 속에는 불교의 생명윤리에 대한 가장 기본입장이 함의(含意)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태란습화, 유정무정, 나다·너다, 할 것 없이 모두 존귀한 생명이라는 함의(含意)이다. 그러므로 인드라망은 “연기적 세계=불교의 생명윤리”와 등치(等値)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실상은 어떠한가? 주지하다시피 21세기의 인류의 대부분은 산업화의 물결과 정보문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드라망=연기적 세계’라는 인식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은 많은 생명들을 파괴를 초래하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음을 목도(目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것은 곧, 가치관의 전도로 모든 것이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고, 평가받는 세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됨이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도덕적 해이·사회질서의 붕괴·전도된 가치관·심성(心性)의 타락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현상, 각종 범죄, 폭력 등은 다름 아닌 현대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병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히 언급해보면, 현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항목으로는 다양한 살인사건의 범죄행위·생명조작과 생명복제·낙태로 인한 임신중절·뇌사·장기이식·안락사와 존엄사·사형제도, 동물실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서로는 조계종 종단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등이 있고, 그 내용은 불교생명윤리 총론, 생명조작, 낙태에 대한 불교의 견해 등이 다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서 등¹⁾이 있으며, 또 생명윤리에 대한 활동의 사이트로 불교생명윤리협회, 한국생명윤

1)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성한, 『생명윤리』(서울: 철학과현실사, 2008); 장성익, 『생명 윤리 논쟁』(서울: 풀빛, 2014); 이종원, 『기독교 생명윤리-인간복제 유전자치료 존엄사 뇌사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서울: 북코리아, 2013); Robert M. Veatch 저, 이종원, 류은숙 옮김, 『히포크라테스와 생명윤리』(서울: 북코리아, 2013); 문시영, 『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생명의료법연구소,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로도스, 2014); 김승철, 『생명공학·생명윤리·종교』 『불교평론』Vol.3 No.1 (통권6)(서울: 불교평론사, 2001.3);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서울: 가치창조, 2001); 桐田清秀, 『環境・生命倫理と佛教』 『(花園大學)禪文化研究所紀要』Vol.19 (일본: 花園大學 禪文化研究所, 1993.1); 星野一正, 『老いをめぐる生命倫理』 『東洋學術研究』Vol.37, no.140 (일본:

리학회 등²⁾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명윤리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의 연구는 생략하고, 다만 여기서는 불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살생’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경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와 일화들을 통해서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불교의 생명윤리관과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의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입각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II. 불교의 생명윤리관

1.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생명이란, ‘살아있음’을 뜻하지만, 그 ‘살아있음’의 본질을 규정하기란 과학에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한편 불교에서는 생명(生命)이라는 말을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고, 생(utpāda, jāti)과 명(jivita)을 따로 쓰거나, 수명(āyur), 명근(命根 ivita-mūla)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현상이나 생명체에 해당하는 불교용어로는 중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생명관에 대한 정의를 경전에서 찾아보면, “명근(命根)의 본질은 바로 목숨[壽]으로서 능히 체온(煖)과 의식(識)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개별적인 실체가 있어 능히 체온과 의식을 유지하게 하니, 그것을 일컬어 목숨³⁾”이라고 하였다. 또 생명을 보는 관점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한다.”⁴⁾고 한 12연기설로 설명된다. 이 12연기설은 존재의 발생과 소멸의 법칙성을 설명한 것으로서, 우리의 생사(生死)를 원인과 결과로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생명관은 이러한 연기법의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자연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라 할 수 있다.⁵⁾

東洋哲學研究所, 1998.2); 中山愈 著, 『生命倫理= Bioethics』(東京: 弘文堂, 平成7[1995]); 中谷瑾子, 『21世紀につなぐ生命と法と倫理』(일본: 有斐閣, 1999) 등이 있다.

2) 불교생명윤리학회 <http://www.budlife.or.kr/>; 한국생명윤리학회 <http://www.koreabioethics.kr/>

3) 세친, 『아비달마구사론』권5, T29, p. 26a. “命根體即壽 能持煖及識.”

4) 『잡아함경』제13권 335. 『第一義空經』, T02, p. 92c.

5)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59쪽.

즉, 일체존재의 존재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상호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生], 소멸하는 것이 우주만물의 이치이며 근본인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은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삶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삶의 부정이다.

일반적으로 죽음 혹은 사망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죽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생명이 존속되거나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은 심장박동정지 및 호흡기능과 뇌기능상실이다.⁶⁾ 이것이 현재 의학계에서 죽음의 판정기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심폐기능설’과 ‘뇌사설’이다. 심폐기능설에 의한 사망은 호흡이 먼저 정지되고, 나중에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폐장사(lung death)’와 심장박동이 먼저 멈춘 후 호흡이 정지되는 ‘심장사(heart death)’로 다시 구분된다. 뇌사설은 뇌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인간죽음의 최종판단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⁷⁾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정의는 육체(色)·감각(受)·지각(想)·의지(行)·의식(識)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오온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⁸⁾ 즉, 오온에 의해 구성된 인간은 인연의 화합에 따라 탄생되었다가 그 생성의 인연이 다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는 5구성요소의 집합체를 인간존재의 기본으로 보고, 생명[生]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5구성요소의 결합이고, 죽음은 이 5원소가 흩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 보았다.⁹⁾ 즉 오온에 의해 구성된 인간은 인연의 화합에 따라 탄생되었다가 그 생성의 인연이 다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경전에서 찾아보면, 붓다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4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터럭·치아·손톱·발톱·살가죽·근육·뼈·골수·더러운 몸뚱이들은 다 흠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콧물·고름·피·진액·거품·가래·눈물·정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4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실은 허깨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6근이 있게 된 것이니라. 6근과 4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緣氣]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¹⁰⁾

여기서 중연화합생(衆緣和合生)으로 이루어진 중생의 생명현상은 인연이 흩어지면 결국

6) 이부영 편, 『의학개론 2』(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263쪽.

7) 위의 책, 253-256쪽.

8) 김용표, 「불교에서 본 죽음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1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292쪽.

9) 강기선, 「불교의 죽음대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별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8), 876쪽.

10)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T17, p. 914b-c.

사대(四大)의 기운으로 각기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불교의 초기 경전인 『잡아함경』에서는 “수명과 체온과 인식은 육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그 육신은 흙더미 속에 버려져 나무나 돌처럼 마음이 없다. 수명과 체온이 사라지고 기관이 모두 파괴되어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일컫는다.¹¹⁾”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수명이란 생명에 관계하는 기관[命根]이다. 수명은 체온과 의식을 보존하여 지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명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다시 말해 수명은 체온과 의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체온과 의식이 육신으로부터 사라질 때 수명은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¹²⁾ 따라서 불교에서 죽음이란 육신과 의식의 완전한 소멸(身智滅)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2. 생명윤리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어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윤리[bioethics]는 그리스어의 바이오(bios)와 에식스(ethics)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道理)와 규범(規範)”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의 ‘생명’은 ‘중연화합성(衆緣和合性)에 의한 연기적(緣起的) 존재’로 설명할 수 있겠다.

불교에서 불교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칠불통계(七佛通偈)’이다. 이 칠불통계의 내용을 분석해보았을 때, 윤리의 사전적 의미가 내재(內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생명윤리란 생명에 관해 중생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라고 정의된다고 하겠다.

먼저 생명윤리의 존엄성을 인간과 자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교경전에 생명(生命)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금강경』, 『대지도론』, 『대비바사론』, 『육도집경』, 『현우경』, 『출요경』 등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대략의 일화를 『육도집경』과 『현우경』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옛날에 자비심이 지극한 왕이 있었다. 그는 항상 백성을 자식 대하듯 사랑하는 한(一) 어진 왕이었다.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는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수행 정진하는 보살이었다. 제석천이 이 왕을 시험해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비둘기로 변하게 하고, 자신은 비둘기를 쫓는 매로 변하여 왕 앞에 나타난다. 어느 날 왕에게 비둘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황급히 왕의 품속으로 날아 들어와 자신을 숨겨달라며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뒤쫓던 매가 왕에게 비둘기는 자신의 먹이이니 내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품속에 날아든 소중한 생명인데 어찌 내

11) 『잡아함경』 권21, T02, p. 150b.; 『중아함경』 권24, T01, p. 548a.; 세친, 『아비달마구사론』 권5, T29, p. 26a, “命根體即壽 能持煖及識.”

12) 정승석,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1990), 86-87쪽.

13) 강기선, 앞의 책, 874쪽.

어줄 수 있겠냐고 한다. 그러자 매는 자신도 먹이를 먹지 못하면 죽는 소중한 생명인데, 어찌 왕은 비둘기의 생명만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되는 생명이냐고 반문한다. 이에 왕은 매의 말도 맞기 때문에 비둘기의 생명의 무게만큼 자신의 살덩이를 배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살덩이를 베어서 저울에 달아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왕의 살덩이를 아무리 많이 베어 갖다 놓고 저울에 달아도, 비둘기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야 비둘기의 무게와 같아졌다.”¹⁴⁾

이 일화를 통하여 생명의 가치는 한갓 미물인 한 마리의 비둘기의 무게나 왕인 사람이거나 그 무게는 같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쟁점(issue)들에 대한 붓다(buddha)의 전언(傳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불교의 대승경전의 하나인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에서는 여러 중생들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과 생물을 포획하거나 기르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서원¹⁵⁾에서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4권에서는 사된 행위를 하는 중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정 · 사냥꾼이 되거나, 돼지 · 염소 · 닭 · 개 · 오리 · 거위 · 고양이 · 살쥬이 · 매 · 새매를 기르거나, 물고기나 자라를 낚거나, 온갖 종류의 그물 · 불구덩이 · 독화살을 만들어 벌레나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등 남의 목숨을 끊거나 해치기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악을 지으면,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사된 행을 하는 중생이라 한다.”¹⁶⁾

이 경문에서 백정과 사냥꾼이 되어 땅위의 축생, 허공의 조류, 물속의 어류 등,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시키거나 하는 행동을 사된 중생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중생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기세간의 중생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문: 법행(法行)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하여 기세간을 보호하는지요?”

“답: 법행(法行)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흘려보내거나 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기세간을 보호하는 행이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모두가 불선업(不善業)을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행을 행하는 왕이라면 불을 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곧 성읍 · 취락 · 산림 · 내(川) · 못 · 정원 · 다락 · 궁전 누각 · 온갖 도로 · 다리 · 자연굴택(自然窟宅)과 일체의 곡식 · 콩 · 삼 · 보리 등의 일체의 곡식, 꽃 · 과일 · 총림 어느 하나라도 불

14) 『육도집경』, T03, p. 1b-c; 『현우경』, T04, pp. 351c-352b.

15)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T12, p. 217b.

16) 『대살차니건자소설경』 권제4, T09, p. 334a.

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태우거나 베어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목숨을 지닌 축생 등이 함께 소유하여 쓸모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들 중생들은 허물이 없으니, 마땅히 그들이 수용하는 것을 잃게 해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온갖 숲은 모든 선정천(善淨天)과 온갖 귀신이 함께 공유하여 그 속에서 수용하며, 집과 궁전과 장엄한 누각은 모든 하늘이 함께 머무른다. 정원·못·집·궁전·장엄한 누각은 온갖 수륙(水陸)의 생명 있는 벌레들이 함께 이용하니, 이른바 참새·쥐·닭·개·비둘기·앵무새·코끼리·말·소·염소·고양이·살쾡이·뱀·전갈·거위·기러기·물고기·자라 내지 일체의 미세한 벌레들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法行을 행하는 왕 역시 모든 중생과 함께 이 기세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法行을 행하는 왕이 기세간을 보호하여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¹⁷⁾

이 경문에서 “어느 것 하나 생명의 존엄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이 삼라만상에는 없다”는 불교의 생명윤리의 핵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체의 미세한 벌레들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생(四生)과 12생(生)의 중생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자연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면 목숨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을까? 『대방등대집경』의 경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자.

“저 목숨 살리는 먹이란 어떤 것인가? 저 신명(身命)에 이바지하는 것은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리라. ‘모든 중생들은 나와 친숙이고 나도 모든 중생과 친숙이니, 내가 만약 그들의 살림살이의 도구를 빼앗는다면 이는 온당치 않은 것이다. 만약 중생의 꽃·과일·약초와 다섯 가지 곡식의 정기라는 목숨 살리는 먹이를 빼앗고, 저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꽃·과일·약초와 다섯 가지 곡식의 맛과 정기를 먹게 한다면, 이는 그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어위고 힘없고 생각을 잃고 성내고 미워하고 초조하고 거칠고 색이 나쁘고 병이 많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과거 여러 천선(天仙)들의 가르침에 수순하되, 낱알의 꽃과 과일의 못 맛과 정기 중 64分の 1의 정기만으로 나의 신명을 살리고, 나머지 63분을 중생을 살리는데 남겨서 안락을 누리게 한다. 나는 이제 이 만족할 줄 아는 인연으로써 생사유전을 할 때라도 다시는 맛과 정기가 없는 해로운 먹이를 먹지 않을 것이며, 큰 위력을 갖추어서 기억이 강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색이 좋고 병이 없게 한다.’ 이것을 일러 목숨 살리는 먹이라 한다. 이것을 일러 세간의 청정 평등이라 한다.”¹⁸⁾

이 경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에서의 생명존중 사상은 불교수행의 실천덕목인 불살생계가 핵심이 된다. 생태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살림살이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이 불살생계의 정신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억압된 생명을 해방하고 살려주는 방생의 정신도 내포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불교적 견지에서 생명윤리의 존엄성을

17) 『대살차니건자소설경』권제4, T09, p. 335b.

18) 『대방등대집경』권제50, T13, p. 326b-c.

19)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앞의 책, 110쪽.

논할 때 인간만이 존엄하고 다른 생명체는 인간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우주만물의 생태계는 하나의 뿌리²⁰⁾이기 때문에 자연을 등지고 생태계를 파괴하고서는 인간은 생활할 수가 없다. 우주만물과 못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사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어느 한 부류만 존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는 현 사태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생태계파괴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Ⅲ. 칠불통계계의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

앞에서 이미 불교의 생명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이다. 칠불통계계의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²¹⁾ 라고 강조한, 이 계송의 가르침은 크게 열 가지 악업과 열 가지 선업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라.’ 라는 것은 열 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라는 것은 열 가지 선업에 속한다. 여기서는 십악업과 십선업의 첫 번째 항목인 몸으로 짓는 행위인 살생과 불살생, 경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살생의 악업

불교의 경전에는 살생·불살생과 연관되지 않은 항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잠시 언급한 십선업과 십악업이다. 여기서 십선업은 불살생의 측면을 의미하고, 십악업은 살생의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십악업은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많은 악업 가운데 몸·입·뜻 3가지 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0가지의 악업을 말한다. 『대승보살장정법경』에는 십악업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20) 조용길, 『불교의 생명·동물과 생태환경 윤리관의 인드라마』 『한국불교학』36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4), 229쪽.

21) 『출요경』권제25, T04, p. 741b.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악업에 열 가지가 있으니, 그 열 가지란, 첫째 생물을 죽이는 것, 둘째 도둑질하는 것, 셋째 사음하는 것, 넷째 망령된 말을 하는 것, 다섯째 꾸미는 말을 하는 것, 여섯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것, 일곱째 욕설하는 것, 여덟째 탐하는 것, 아홉째 성내는 것, 열째 사된 견해이다. 이런 열 가지 악업은 차츰 악취로 향하고, 악취를 더욱 늘리며, 악취를 넓게 연다.”²²⁾

이상의 십악업의 내용을 부연해보면, 첫째, 생명을 죽이는 살생 둘째,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투도 셋째, 간음으로 남녀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사음 넷째,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망어 다섯째, 실없고 잡된 말을 하는 기어 여섯째, 말로써 욕하거나 멸시하는 악구 일곱째, 이간질하는 양설 여덟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 아홉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증오나 혐오에 빠지는 분노 열째, 그릇된 견해에 빠지는 사건 또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 십악업 중 살생·투도·사음은 신업에 해당되고, 망어·기어·악구·양설은 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탐욕·진에·사건은 의업에 속한다.

1) 살생의 경전사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살생은 십악업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불교 경전 속에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생의 개념을 살펴본다.

“살생이란 처음부터 마음을 일으켜서 마땅히 어떠한 중생의 생명을 죽이리라고 결정하는 것이며, 혹은 남을 시켜 죽이거나 더 행동할 마음(加行心)을 일으켜 바로 그의 생명을 끊으며 조각조각 가르고 베어 수용하면 이 사람은 살생죄를 지었다고 한다.”²³⁾

위 『북개정행소집경』의 경문에 보이는 살생의 개념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마음을 일으켜서’라는 구절에서 살생을 이미 결정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으로 이미 짓는 업(思已業, 表業)이라고 한다. 남을 시켜 죽이는 것도 살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경문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이른바 살생이란, 다른 중생에 대하여 중생이란 생각을 내고 죽일 마음을 일으켜 그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그 살생에도 상·중·하의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상(上)이란 아라한 등을 죽이고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중(中)이란 도에 머무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하(下)란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는 것이다. 살생에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과거와 미래와 현재다. 살생에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탐내어 죽이는 것과 성내어 죽이는 것과 어리석어 죽이는 것이다. 탐내어 죽임이란 사냥 따위를 말하는 것이며, 성내어 죽임이란 백정(下賤)을 말하는 것이며, 어리석어 죽임이란 외도들이 행하는 재(齎)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살생에는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직접 죽이는 것과 남을 시켜 죽이는 것과 그 두 가지를 겸한 것이다.”²⁴⁾

22) 『불설대승보살장정법경』 제2권, T11, p. 783b.

23) 『북개정행소집경』 제11권, T32, p. 742b.

위에서 살펴본 『정법념처경』은 살생에 대한 정의를 상·중·하의 3가지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대반열반경』에서는 살생을 오온에다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보살이 세간의 일체 중생들을 보니, 그들은 생사에 빠져 해탈하지 못한다. ‘오온’이라고 하는 살생하는 자에게 항상 살해를 당하고 있다.”²⁵⁾

이 경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생을 행하는 자를 ‘오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피해자인 중생은 피의자인 오온에게 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생의 불성 또한 이 오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번뇌가 보리인 것처럼, 중생과 오온이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오온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오온을 깨뜨리면 그 과보로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반열반경』의 경문에서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이 5음 속에 있으니 5음을 깨뜨리면 살생이라 할 것이며, 살생하면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²⁶⁾라고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오음(五陰)은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종류대로 모아서 5종으로 구별한 오온이다. 따라서 오온은 좁은 의미로는 인간존재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일체 존재를 말한다. 여기서 색(色)은 물질적인 현상을 말하고,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은 정신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문에서 5음을 파괴하면 살생이라고 한 것은, 인간존재는 물질적 존재인 육체와 정신현상인 의식이 깨뜨려지면 살생을 하게 되므로, 감각기관인 6근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살생의 과보

세간에서 살생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살생하면 살생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살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과보에 대해 붓다(buddha)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붓다(buddha)는 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가 과보를 받으니, 현재 세계에서 받거나 후세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그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²⁷⁾

24) 『정법념처경』권제1, T17, p. 2b.

25) 『불설대승보살장정법경』 제17권, T11, p. 821a.

26) 『대반열반경』 제7권, T12, p. 408c.

27) 『중아함경』권제3, T01, p. 437b.

여기서의 핵심은 업설(業說)이라 할 수 있는데, 의지를 지닌 인간은 업(業)을 일으켜 자신의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에 따라 생사를 유전하면서 고락(苦樂)의 과보(果報)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업설은 인과업보사상을 선악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정법념처경』에서는 5가지 인연으로 살생하면 살생에 대한 과보가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살생에는 또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살생하더라도 살생한 죄업이 없는 것이 있다. 첫째는 길을 가다가 무심히 개미 따위의 곤충의 목숨을 끊는 것이요, 둘째는 쇠꼬챙이 같은 것을 던졌다가 살생할 마음이 없었는데 무심히 생물의 목숨을 끊는 것이며, 셋째는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자에게 약을 주었다가 그 약 때문에 목숨이 끊어졌으나 의사에게 악심이 없는 것이요, 넷째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버릇을 고치려고 때렸다가 그 때문에 목숨이 끊어진 것이며, 다섯째는 무심히 불을 켜는데 별레가 날아들어 죽는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는 비록 목숨을 끊었어도 살생한 죄는 받지 않는 것이다.”²⁸⁾

불교에서는 죄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의성이 있는가? 고의성이 없는가?”에 따라 받는 과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경문에서 언급한 5가지 인연의 항목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는 살생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기 때문에 살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또 대승경전의 하나인 『대반열반경』에는 살생의 종류와 그 과보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어 주목된다.

“선남자야, 부처님과 보살들은 살생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음을 아신다. 그것은 곧 하품살생, 중품살생, 상품살생이 있다. 하품살생은 개미나 모든 축생을 죽이는 것이며, 그 과보로 지옥도나 축생도, 아귀도에 떨어져서 하품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하품중생들도 작은 선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보살이 일부러 태어난 것은 제외한다. 보살이 원력으로 축생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중품살생은 범부들로부터 아나함까지 죽이는 것을 말하며, 그 과보로 지옥도·축생도·아귀도에 떨어져서 중품 고통을 받는다. 상품 살생은 부모·아라한·벽지불·결정된 보살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그 과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상품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천제를 죽이면 이 3가지 살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유하면 땅을 파고 풀을 베고 나무를 찍는 것은 죄보가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저 바라문들은 믿음 따위의 다섯 가지 법(根)이 없으므로 죽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²⁹⁾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생에도 상·중·하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문은 앞에서 살펴본 『정법념처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문에 언급하고 있듯이, 살생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부모와 부처님을 죽이

28) 『정법념처경』권제1, T17, p. 2b.

29) 『대반열반경』권제16, T12, p. 460a-b.

는 것이다. 그 과보로 아비(avīci)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은 살생했을 때 받게 되는 과보를 “세간의 혹 어떤 사람이 오로지 살생을 일삼으면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친 뒤 나쁜 길에 떨어져 지옥에 가게 된다. 왜냐하면 살생과 사된 소견들 때문이다.”³⁰⁾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살생의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살생과 사된 소견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서는 살생의 과보를 “살생의 죄는 중생들을 지옥·축생·아귀에 떨어지게 하는 까닭이 된다. 만약에 사람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단명이요, 둘째는 병이 많은 것이다.”³¹⁾라고 경계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이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대지도론』에서 살생을 하면 10가지 과보가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 열 가지란 다음과 같다.

“살생을 하면 열 가지 죄가 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마음에 항상 독을 품어 세세에 끊이지 않고, 둘째는 중생들이 증오하여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셋째는 항상 나쁜 생각을 품어 사된 일을 생각하며, 넷째는 중생들이 그를 겁내기를 내어 마치 범이나 호랑이를 보듯 피하고, 다섯째는 잘 때에 두렵고 깨어서도 편안치 않으며, 여섯째는 항상 악몽에 시달리며, 일곱째는 임종할 때에 미쳐 두려워하면서 추하게 죽고, 여덟째는 단명할 업과 씨앗을 심고, 아홉째는 몸이 무너진 뒤에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단명하리라.”³²⁾

『수능엄경』에서는 “죽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³³⁾라고 경계하고 있다. 또한 『잡아함경』에서는 “사냥꾼이나 사냥꾼의 제자가 텅 빈 들판이나 숲 속에 그물을 치고 덫을 놓아 많은 짐승을 죽이고 중생들을 괴롭혀서 악한 업이 더욱 많아진다.”³⁴⁾라고 것은 불살생의 범위를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니, 이렇게 온갖 중생들[十生之類]이 죽고 또 죽고 나고 또 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 만나 서로 잡아먹으며 나쁜 업을 짓고 함께 태어나기를 미래가 다하도록 쉬지 않는다.”³⁵⁾

이 경문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쉬지 않음으로써 중생들은 번갈아 가며 육도윤회를 거듭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육도윤회의 원인은 갈애와 무명 때문이다. 윤회는 흐름[相續

30) 『기세경』 제2권, T01, p. 316c.

31)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제2권, T09, p. 328b.

32) 『대지도론』, T25, p. 155c.

33) 『수능엄경』 제6권, T19, p. 132a. “殺心不除塵不可出.”

34) 『잡아함경』 제46권, T02, p. 336b.

35) 『수능엄경』 제4권, T19, p. 120b.

santati]인 찰나생·찰나멸의 흐름이다. 매 찰나 전개되는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 생멸하여 흐르는 것이 윤회의 특징인 것이다.

2. 선업의 불살생

여기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열 가지 착한 업의 첫 번째 조항인 불살생의 사례를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불살생의 경전사례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넓은 측면의 관점에서 불살생을 이해하고 있다. 초기 경전인 『별역잡아함경』에서는 “금계를 잘 지켜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며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물을 해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품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성내거나 해칠 마음을 내지 말라.”³⁶⁾라고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인간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사생(四生)의 생물체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잡아함경』 「조소경」의 일화는 자애로운 천제석이 어떻게 불살생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경문이다.

“천제석과 아수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천제석의 군사는 패망하여 흩어지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생겨 수레를 타고 북으로 치달려 천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도중에 수미산 아래 길가에는 우거진 숲 속에는 금시조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금시조 새끼가 많이 있었다. 그 때 천제석은 수레와 말이 지나가다가 그 새끼들을 밟아 죽일까 걱정이 되어 ‘수레를 돌려라. 새 새끼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자, 마부가 ‘아수라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되돌아가면 그들에게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석이 ‘차라리 되돌아 가다가 아수라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군사들 때문에 중생들이 길에서 밟혀 죽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또한 자애로운 마음에 대한 공덕을 찬탄해야 한다.”³⁷⁾

여기서 붓다는 천제석이 조류인 금시조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 곤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오던 길을 되돌린 제석의 자애로운 마음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고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경문은 힘의 관점에서 비록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윤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지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문이다. 이 경문에서 제석천은 조류인 금시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36) 『별역잡아함경』14, T02, p. 475c. p.476a.

37) 『잡아함경』 제46권, T02, p. 333b.

인간의 내재된 가치와 그에 따른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의 존엄성 역시 인정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경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일아함경』 「선악품」과 「삼보품」등에도 불살생에 관한 내용들이 설해져 있다. 여기서 붓다는 “남들은 살생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살생하지 않아야 한다. 살생을 떠나 살생하지 않음으로서 열반에 들며, 남들이 살생하더라도 우리는 살생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³⁸⁾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열반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다름 아닌, “선남자나 선여인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하지 않는 것이니, 칼이나 몽둥이로 해를 가하지 않고 항상 부끄러워할 줄을 알며 자비심을 가져 널리 일체 중생들을 생각하는 것”³⁹⁾임을 알 수 있다. 또 『법구경』에도 불살생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언급한 「자인품」은 큰 사람과 성인이 실천한 덕이 한량없이 넓음을 말한 품이다.

“인자한 마음으로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항상 제 몸을 잘 단속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⁴⁰⁾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⁴¹⁾ 인자하지 않으면 생물을 죽이고, 계율을 어겨 거짓말하며 남에게 지나치게 베풀지 않아, 중생들을 돌볼 수 없다네.”⁴²⁾

이 경문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별역잡아함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불살생과 살생을 등치개념(等値概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행품」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악행품」이란 악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절실히 느낀 바 있어, 죄의 과보가 있는 것은 행하지 않아야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설한 품이다.

“남을 때리면 나도 맞게 되고 /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는다.
남을 꾸짖으면 나도 꾸짖음을 받고 / 남에게 성내면 나도 성냄 받는다.”⁴³⁾

「악행품」의 경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사상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소멸한다.”⁴⁴⁾는 연기의 법칙이 그 과보에 따라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법구경』에는 「도장품」이 있을 정도로

38) 『증일아함경』권제43, T02, p. 784b.

39) 위의 책 제12, T02, p. 606c.

40) 『法句經』, T04, p. 561b. “爲仁不殺 常能攝身 是處不死 所適無患.”

41) 위의 책, p. 561b. “不殺爲仁 慎言守心 是處不死 所適無患.”

42) 같은 책, “不慈則殺 違戒言妄 過不與他 不觀衆生.”

43) 위의 책, p. 564c. “擊人得擊 行怨得怨 罵人得罵 施怒得怒.”

44) 『잡아함경』권제13, T02, p. 92c. “謂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불살생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도장품』이란 자비와 어짙을 가르쳐 익히게 하여 칼이나 몽둥이로 중생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기 위해 교설한 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품에 시설된 경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든 중생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 몽둥이의 아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어 보아 / 죽이지 말고 매를 가하지 말라.”⁴⁵⁾

“때리거나 죽이거나 태우지 않고 / 또한 이기기를 구하지 않으며
천하의 사람을 사랑하면 / 어디를 가나 원망이 없으리.”⁴⁶⁾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⁴⁷⁾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불성(佛性)이란 부처를 이룰 근본 성품으로, 미혹(迷)·깨달음(悟)에 의하여 변하는 일이 없이, 본래 중생에게 갖추어진 부처될 성품이다.

『묘법연화경』의 상불경 보살은 언제나 멀리서 사부대중이 보이면 쫓아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그대들은 반드시 성불하리라.”⁴⁸⁾라고 공경예배하고 있다. 상불경 보살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모든 존재는 부처될 씨앗을 함장(含藏)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개개의 모든 생명체는 다 평등하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살생의 과보

십악업을 참회하고 정반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십선업이 된다. 여기서는 반대로 살생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는 반대로 살생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과보에 대한 내용을,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혹 어떤 사람이 살생한 적이 없으면, 이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 착한 길을 향하여 가서 사람과 하늘 가운데 나게 된다. 왜냐하면 살생하지 않은 것과 바른 소견들 때문이다.”⁴⁹⁾

라고 경문은 설하고 있다. 이 경문은 살생한 적이 없으면 사람과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불살생과 바른 소견을 들고 있다. 대승경전의 하나인 『대보적경』에 “살생하지 않으면 오래 살게 된다.”⁵⁰⁾라 하였다. 또 살생을 여의는 것에 4가지 과

45) 『법구경』, T04, p. 565a. “一切皆懼死 莫不畏杖痛 恕己可爲譬 勿殺勿行杖.”

46) 같은 책, “不伐殺燒 亦不求勝 人愛天下 所適無怨.”

47) 『대반열반경』권제30, T12, p. 799c. “一切衆生悉有佛性.”

48) 『묘법연화경』, T09, p. 50c. “汝等皆當作佛.”

49) 『기세경』 제2권, T01, p. 316c.

50) 『대보적경』권제106, T11, p. 593c. “不害得長壽.”

보가 있다고 경전은 설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생을 여의는 것에 네 가지 과보가 있다. 첫째, 보살마하살은 일체 중생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능히 두려움과 겁을 내지 않는 보시를 한다. 두려움이 없는 까닭에 일체 중생이 친근하며 공양하고 존중하여 찬탄하고 보살은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낼 것이며, 자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던 일체의 원한이 저절로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 둘째, 성내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이 다 약해지니 자비의 감로를 써서 그 마음을 흠뻑 젖게 하여 성냄 등의 이글거리는 고뇌를 없애고, 항상 악몽 없이 안온하게 잠을 자니 자비심으로 인해 야차의 모든 귀신이나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아가 모든 악한 짐승들이 항상 서로 보호하여 주게 될 것이다. 셋째, 미래세에 세 가지 과보를 얻나니 첫 번째 과보는 수명이 길어서 중간에 요절함이 없고, 두 번째 과보는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병고가 없으며, 세 번째 과보는 큰 부자로 재물이 넉넉하여 항상 자재로움을 얻는 것이다. 넷째는 살생하지 않는 까닭에 부처님의 법을 얻어서 5취 가운데 태어날 곳을 그 세상에서 뜻대로 자유로이 하여 능히 가서 머물며 나아가 보리수 아래 앉으리니, 온갖 악마 귀신도 그가 등정각 이루는 것을 막지 못하며 무량한 여러 성인들이 감싸주시는 것이다. 자씨여, 이것이 곧 살생을 여의어 얻는 네 가지 과보이다.”⁵¹⁾

불살생의 공덕의 과보를 설한 경문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생을 쉽으로써 열 가지 공덕을 얻나니, 그 열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중생에 대해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중생에 대해 큰 자비심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나쁜 습기를 끊음이요, 넷째는 온갖 병과 고뇌를 적게 해서 일을 위해 결단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장구한 수명을 얻음이요, 여섯째는 비인에게 옹호를 받음이요, 일곱째는 자나 깨나 안온하여 나쁜 꿈도 없음이요, 여덟째는 모든 원수가 없음이요, 아홉째는 나쁜 갈래를 겁내지 않음이요, 열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착한 갈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 어진이여, 이것을 이르되 살생을 쉽으로써 열 가지 공덕을 얻는다. 만약 이 살생을 권 선근으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한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위없는 지혜를 증득할 것이고, 그 사람이 보리에 이를 때 그의 국토에는 모든 살해를 여윈 수명이 긴 중생만 그 국토에 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⁵²⁾

이 경문은 살생하지 않으면 열 가지 공덕이 있다고 설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인간만의 땅이 아닌, 삼라만상의 모든 유정·무정물이 공존해야 할 소중한 복토이다. 『대방등대집경』에서 붓다(buddha)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계신다.

“모든 중생에 있어서도 낱알의 중생으로부터 벌레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다 애욕으로 자기 신명을 소중히 여기되 물리는 일이 없어서 모든 방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수호함이 값을 따질 수 없나니, 내 어찌 다른 중생과 다른 목숨을 괴롭히고 해치어서 그 목숨 살리는 먹이를 빼앗거나, 목숨

51)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제5권, T08, p. 888b.

52) 『대방등대집경』 권제50, T13, p. 333c.

뿌리를 여의게 하고 험하게 하겠는가?”⁵³⁾

라고 경문에서 붓다는 경책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다. 이 본능에는 낱알의 미물(微物)로부터 벌레와 개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될 지혜의 품성(佛性)이 다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붓다의 교설이다. 따라서 인간·축생·조류·어류 등에 상관없이 일체 생명체는 평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IV. 불교의 종교교육

지금까지 경전에 보이는 생명윤리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일화·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이러한 일화와 사례들은 불교의 종교교육의 한 형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생명윤리와 여기서 살펴볼 종교교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 불가분의 연기적 관계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상술한 생명윤리에 외에도 불교경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윤리 관련내용과 교육방법들⁵⁴⁾이 설해져 있다. 여기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을, 지혜와 대비의 마음·연기적 세계관의 인식·불살생의 실천윤리인 방생과 사무량심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한정해 살펴보았다.

1. 지혜와 대비의 마음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동안의 생활은 전부가 지혜와 대비심의 구현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시 부처님의 일상생활은 곧 중생교화의 생활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와 대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지혜의 용어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는 반야(prajñā)로 ‘밝음’, 곧 일체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안목인 정견(正見)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크게 다른데, 지식은 하나하나의 앎, 즉 사물에 대한 낱개의 앎과 그것들의 모아서 쌓음(集積)을 말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완벽히 알아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혜는 개인적으로 가장 수승한 삶의 능력이자 가장 효과적이고 최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교육]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붓다

53) 위의 책, p. 326a.

54)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화와 교육은 일맥상통한다.

의 전언(傳言)이다.

『중아함경』 『대구치라경』에 지혜에 관한 문답(問答)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문(問):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가?”

“답(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 한다. 어떤 것을 아는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를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를 알며, ‘이것은 괴로움의 멸함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를 알고, ‘이것은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다’ 고 사실 그대로를 아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 하는 것이다. 또 지혜에는 싫어한다는 뜻이 있고, 욕심이 없다는 뜻이 있으며, 사실 그대로 본다는 뜻이 있다.”⁵⁵⁾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것은 연기의 진리인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해경』은 지혜의 모습에 4가지가 있다고 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혜에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좋은 말을 들으면 곧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듣고 나선 곧 받아들여 명심하는 것이며, 셋째는 명심하고 나서는 잘 사유하는 것이며, 넷째는 마음으로 잘 사유하고 나서는 다시 질문해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⁵⁶⁾

이 경문은 “지혜를 바른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며, 듣고 곧 받아들여 명심하여 잘 사유해서, 다시 그 뜻을 알려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가야산정경』에서는 지혜를 “여래의 지혜는 보름달의 달과 같은 것이고, 지혜로써 여실히 도를 수행하는 것이다.”⁵⁷⁾ 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지혜를 증득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경문은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지혜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혜의 완성은 곧 성불(成佛)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고래(古來)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이 불철주야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지혜가 있으니, 열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인의 지혜요, 둘째는 과의 지혜요, 셋째는 이치의 지혜요, 넷째는 방편의 지혜요, 다섯째는 슬기로운 지혜요, 여섯째는 포섭하는 지혜요, 일곱째는 바라밀의 지혜요, 여덟째는 대비의 지혜요, 아홉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요, 열째는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이니, 선남자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지혜라 한다.”⁵⁸⁾

위의 경문에서는 지혜의 10가지 종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의 지혜는

55) 『중아함경』 58권, T01, p.790b-c. “問曰智慧者說智慧, 何者智慧 答曰知如是故說智慧 知何等耶 知此苦如眞 知此苦習 知此苦滅 知此苦滅道如眞 知如是故說智慧. 智慧者有厭義 無欲義 見如眞義.”

56) 『삼해경』, T17, p. 702a.

57) 『가야산정경』 제1권, T14, p. 485a-b.

58) 위의 책, p. 485c.

곧 연기법인 공을 말하며, 이치의 지혜는 사성제의 진리를 바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연기법의 이치를 여실하게 알고, 방편과 슬기로운 지혜로써 중생을 포섭해서 6바라밀을 수행하는 대자대비의 지혜이다. 중생들을 사섭법과 사무량심 등으로 교화해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이니, 이것을 열반의 경지에 들어 갈수 있는 보살의 열 가지 지혜라고 한다.

대자대비는 줄여서 ‘자비’라 하며, 중생을 연민히 여겨 구제하는 실천행이다. 자(慈)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maitrī)에서 나온 것으로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悲)는 ‘연민 · 동정 · 함께 슬퍼한다.’는 의미(karuṇā)로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拔苦與樂]을 말한다. 『대지도론』에는 부처님의 대비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의 대비는 골수까지 사무치며 세계의 아름답고 추함을 가리지 않고 제도해야 할 이를 좇아서 그들을 교화하신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이 비록 뒷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애써 건져 구하면서 밋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⁵⁹⁾

이 경문에서는 붓다(Buddha)가 연고가 없는 중생들에게 베푸는 무연자비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지도론』 권27에서 대자대비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자는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대비는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 것이다. 대자는 기쁘고 즐거운 인연을 중생에게 주는 것이고 대비는 괴로움을 여의는 인연을 중생에게 주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사람의 여러 아들이 감옥에 갇혀서 장차 큰 죄를 받게 될 때에 그의 아버지는 사랑과 측은한 생각으로 약간의 방편을 써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비이며, 이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나서 다섯 가지 바라는 바(五欲)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대자이다.”⁶⁰⁾

이 경문에서는 대자대비를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법원주립』에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로써 본체를 삼는다.”⁶¹⁾라고 하였다. 경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자비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지혜와 자비사상은 생명윤리정립에 부합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덕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59) 『대지도론』 권제32, T25, p. 302c.

60) 『대지도론석』 권27, T25, p. 256b.

61) 『법원주립』 제95권, T53, p. 985a.

2. 연기적 세계관의 인식

불교는 모든 존재의 본질적 통일을 가르치면서, 개개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국토 안에 있으며 동일하게 불성을 함장하고 있다고 본다. 즉 개개의 모든 존재들은 상호성을 지니며, 모든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연기적 세계관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루어지고[成], 머물다[住], 무너지고[壞], 비어지는[空]것을 우주의 진리라고 규명하고 있다. 다음의 경문은 이러한 불교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의 경문이다.

“모든 세계의 바다는 끝없는 인연에 의해 성립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땅히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중생은 인연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⁶²⁾

이 경문에서 만유(萬有)는 조건에 의해 생성 소멸하듯이, 인연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중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연기법이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바르게 파악하고 인식할 때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공생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전대장경』의 대품에는 우주만물에 존재하는 지하, 지상, 허공, 수중의 태(胎)·란(卵)·습(濕)·화(化)의 생물에게는 저마다 특성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모든 생물에 대한 태생의 구별을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⁶³⁾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풀이다’라든가, ‘우리는 나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다.⁶⁴⁾ 또 구더기나 귀뚜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과⁶⁵⁾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발 달린 짐승과⁶⁶⁾ 배로 기어 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다.⁶⁷⁾ 물속에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과⁶⁸⁾ 그리고 날개를 펴 하늘을 나는 새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⁶⁹⁾ 이와 같이 생물에 있어서는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⁷⁰⁾

이 경문은 모든 생명체의 인과적 존재와 현상의 자재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

62) 『대방광불화엄경』권제3, T09, p. 409c.

63) 소부경전(2) 3.대품, 600계. 『남전대장경』24, p. 229.

64) 위의 책, 601계, p. 229.

65) 위의 책, 602계, p. 229.

66) 위의 책, 603계, p. 230.

67) 위의 책, 604계, p. 230.

68) 위의 책, 605계, p. 230.

69) 위의 책, 606계, p. 230.

70) 위의 책, 607계, p. 231.

명활동의 복잡한 인과는 그 종을 떠나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생(四生)의 양태는 결국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불살생의 실천윤리 방생

불교에서 생명존중사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불살생이다. 살생을 금하는 것과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방생은 목숨을 살려주는 의미이므로 보시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범망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자들이여, 너희는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고의로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호해야 한다.”⁷¹⁾

불교 생명윤리 인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외경이고, 그것의 순수한 발현이 살생하지 않는 행위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구체적 덕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일 불자가 자비심으로 방생하면, 모든 남자는 다 내 아버지요, 모든 여자는 다 내 어머니이다. 나의 생이란 근본이 없는 생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6도의 중생은 다 내 부모이다. 그런데 그것을 죽여 먹으면 그것은 내 부모를 죽이는 것이요, 또 내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 일체의 땅과 물은 다 내 전생의 몸이요, 일체의 불과 바람은 다 내 본래의 몸이다. 그러므로 항상 세세생생마다 생[몸]을 받을 때마다 방생을 행하라.”⁷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육도(六度)의 모든 중생을 다 내 부모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권은 존엄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지하고 방생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경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대(四大)의 구성요소 또한 본래의 내 몸이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중생의 몸은 이 4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음을 볼 때, 경문의 이러

71) 『범망경』제2권, T24, p. 1004b.

72) 위의 책. p. 1006b; 『법원주림』제65권, T53, p. 780b.

한 동체대비의 마음은 일체 중생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四生]를 인간과 동일 선상에 위치시켜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생명존중의 생태적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윤리의 실천행인 보시와 방생은 적극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사무량심의 실천

앞에서 언급했듯이,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말한다. 특히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표방하는 대승불교에서 자비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보살의 실천덕목이다. 이 자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사무량심(四無量心)이다. 사무량심이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없는 중생을 어여뵈 여기는 마음, 네 가지의 평등한 마음이다. 대승불교의 경전인 『대지도론』에서는 사무량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무량심이란 자비회사이다. 자(慈)란 중생들을 사랑하고 생각하여[愛念] 항상 평온하고 즐거운 일을 구하여 풍요한 이익을 주는 것이고, 비(悲)란 중생들이 五道에서 몸과 마음의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을 가엾이 여기는 것[憐念]이다. 희(喜)란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통해 환희를 얻게 하려는 것이고 사(捨)란 이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다만 중생들을 생각하되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⁷³⁾

다음은 『증일아함경』 「안반품」에 보이는 사무량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마땅히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성내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꼭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평정한 마음을 닦아야 한다. 평정한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교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⁷⁴⁾

이 경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무량심은 성내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베풀기 때문에 무량한 마음이라 한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원수가 되거나 시기질투하며 투쟁하는 의식이 없이 자애하게 대해주고 안락을 부여하는 마음이다. 자애로운 마음을 닦으면 성내는 마음이 사라진다. 비무량심은 무량한 중생

73) 『대지도론』, T25, p. 28c.

74) 『증일아함경』 제7권, T2, p. 581c.

을 위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대비심을 말하며, 추호도 중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으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희무량심은 상대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다. 즉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보살의 마음이다.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다 없어진다. 사무량심은 일체의 구애받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평정한 마음을 닦으면 온갖 교만이 없어진다.

『남전대장경』의 사품(蛇品)의 146송과 150송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 자비를 행하라.⁷⁵⁾……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⁷⁶⁾”

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만이 생명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⁷⁷⁾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결정코 마땅히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항상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선설⁷⁸⁾하신 것처럼, 불교에서는 정식이 있는 존재인 모든 유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명존중정신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자비회사(慈悲喜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결과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의 생명윤리의 관점은 연기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중연화합생(衆緣和合生)으로 이루어진 연기적 존재로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자연을 막론하고 일체 모든 존재의 존재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주괴공(成住壞空)

75) 소부경전(2) 1.蛇品, 146계. 『남전대장경』24, p. 53.

76) 위의 책, 150계, p. 54.

77) 위의 책, 146계, p. 53.

78) 『대반열반경』제27권, T12, p. 524b.

한다는 진리이다. 둘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붓다의 핵심전언을 살펴보면, 일체중생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불교생명윤리는 중생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규범(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불교의 생명윤리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가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이다. 여기서 일곱 부처님은 생명의 존귀함에는 사생(四生) 육도(六度)의 중생이 모두 차별이 없으므로 십악업(十惡業)을 금하고, 십선업(十善業)은 받들어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체 생태계에 공존하는 사생(四生)의 생명에도 다 불성이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칠불통계(七佛通偈)에서 설한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善)을 받들어 수행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의 생명윤리라고 한다면, 불교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 불교의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10가지 악업의 범위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살생은 몸(身)과 입(口)과 생각(意)으로 짓는 악업인 삼독(三毒)이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써 그 과보를 초래함을 경문은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와 일화를 경전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처님은 우리 중생에게 정견(正見)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십선업의 선행(善行)은 실천하고, 열 가지 악업은 실천하지 말라는 것을, 천차만별의 중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팔만사천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의 핵심은 나와 남, 인간과 자연, 유정무정의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의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진리가 곧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자연히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모든 생명도 다 소중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은 생명윤리의 토대위에서 적극 실천되어야 하며, 지혜와 대비심·연기적 세계관의 인식·불살생의 실천방법인 방생과 사무량심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권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약어 T: 大正新脩 大藏經.

『중아함경』·『기세경』·『불반니원경』, T01.

『잡아함경』·『별역잡아함경』·『증일아함경』·『불설팔정도경』, T02.

『육도집경』, T03.

『법구경』·『출요경』·『현우경』, T04.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T08.

『묘법연화경』·『대방광불화엄경』·『대살차니건자소설경』, T09.

『대보적경』·『불설대승보살장정법경』·『불설대승보살장정법경』, T11.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대반열반경』, T12.

『대방등대집경』, T13.

『가야산정경』, T1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정법념처경』, T17.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 T19.

『범망경』, T24.

『대지도론』, T25.

『아비달마구사론』, T29.

『복개정행소집경』, T32.

『법원주림』, T53.

소부경전(2), 『남전대장경』, 24.

강기선, 「불교의 죽음대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2008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논집』별집, 서울: 韓國佛敎學會, 2008.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서울: 조계종출판부, 2012.

불교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경주: 동국대학교불교문화대학, 1997.

이부영 편, 『의학개론2- 인간과 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정승석,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1990.

김용표, 「불교에서 본 죽음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조용길, 「불교의 생명그물과 생태환경 윤리관의 인드라마」, 『한국불교학』제36권, 서울: 한국 불교학회, 2004.

불교생명윤리협회 <http://www.budlife.or.kr/>

한국생명윤리학회 <http://www.koreabioethics.kr/>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17일 심사일: 201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4일

연구자소개: 강기선(도업)

- ① 전공: 불교교육학
 - ② 소속: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 ③ 관심영역: 응용불교, 불교문학, 대승불교, 화엄경.
 - ④ 주요논저: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화엄경 세주묘엄품의 문학적 표현방법에 대한 분석」, 「화엄경 사제품에 나타난 사성제의 의미에 대한 분석」, 「불교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십이분교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불교의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불전에 나타난 문학적 비유」 외 다수
 - ⑤ E-mail: 11doup@naver.com
-

Abstract

Bioethics and Buddhist Teachings

Kang, GiSeon(Ven, Doup)

Dongguk University

This text will contemplate on religious education of Buddhism based on the teachings of bioethics. The view toward life in Buddhism can be found in Buddhist scripts, which states that life is the very essence of a being, and ‘life’ means the ability to sustain one’s warmth and consciousness.

Meanwhile, death means the exact opposite of it; neither time nor warmth remains, all the organs are destroyed, separating the life from the body. Therefore, life is the union of The five skandhas, death is the separation of them, and killing is the devastation of them. According to the script, one is bound to kill when The five skandhas are not in control, so the script alerts that one must tame one’s skandhas by keeping six sensory organs in control.

There are two thing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top priority in Buddhist teachings: wisdom and compassion. If wisdom is a cure for overcoming temptations and restoring humanity in modern society, compassion is the motivation for the act of salvaging people. These are two keywords that represents the elemental will of Buddhism - protection of all lifeform’s right to live.

When practicing good deeds instead of evils mentioned by seven past Buddhas is the nature of the religion, What the religion aims to achieve is to be enlightened oneself as well as guiding others toward it. In other words, Buddhism considers every living creatures to be invaluable, and every single human are also considered to be precious beings with potentials to become a Buddha. Such respect towards life in Buddhism is shown in the practices of releasing captive animals, and having compassion towards others(慈悲喜捨). Buddhist teachings implies great importance of bioethnics, as it mentions that human can co-exist with nature when we realize that all life forms are as equally precious as us.

Keywords: prajñā(智慧) and Maitrī-karūṇā(慈悲), A common refrain of the seven ancient Buddhas (七佛通戒偈), bioethics, release of captive animals, pañca-skandha(五蘊), The four immeasurable minds(四無量心)